바이든 "중, 대만 침공땐 군사적 개입"

CBS 인터뷰 직접 방어 시사
전략적 모호성 탈피할지 주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이 군사적으로 직접 개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방영된 미국 CBS의 심층 인터뷰 프로그램인 '60분' (60 Minutes)에서 중국의 침공 때 대만을 방어할 것이냐는 물음에 "사실, 전례 없는 공격이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와 달리 미군부대, 병력이 중국의 침공 때 방어에 나서는 것이냐고 구체적으로 따져 묻는 말에도 "그렇다"고 답변했다.

미국은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와 러시아의 충돌 등 확전 가능성을 우려해 직접 개입을 자제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인터뷰 발언은 중국, 대만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오랜 정책이 바뀌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인지 주목된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고 대만과 단교할 때 대만관계법을 제정해 대만에 자기방어 수단을 제공하고 유사시 개입할 근거를 뒀다.

이를 토대로 미국은 대만에 군사 지원을 하되 중국의 대만 침공 때 직접 개입 여부를 뚜렷하게 밝히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다.

미국은 수십년간 이 같은 정책을 앞세워 중국의 대만 침공을 막고 대만도 중국을 상대로 독립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하는 억지력을 유지해왔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들어 대만의 독립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를 지지하는 듯한 다른 나라의 행보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한 군사개입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전략적 모호성 정책을 깨는 듯한 발언이 수차례 나왔으나 그때마다 미국 국무부, 백악관이 나서 변화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미국에서는 대중국 매파들을 중심으로 전략적 모호성 전략을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표적 대중 강경파인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6월 대만 외신 기자회견에서 전략적 모호성이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지적했다.미국 군부에서도 비슷한 진단이 나온 바 있다.

필립 데이비드슨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은 재직 시절이던 작년 3월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의 6년 내 대만 침공 가능성을 경고하며 전략적 모호성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연합뉴스

18일(현지시간) 대만 동부 화롄 둥리 기차역에서 규모 6.8의 지진이 발생한 후 열차가 탈선한 모습. 이날 대만 남동부에서 강진이 발생해 건물이 무너지고 다리가 붕괴했으며 열차가 탈선했다. /연합뉴스

'불의 고리' 대만·일본서 연이은 강진

6.8·5.8 지진…한때 쓰나미 주의보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한 대만과 일본에서 18일(현지시간) 연이어 강진이 발생했다.

대만 동부 지역에서는 이날 오후 2시 44분(현지시간)께 규모 6.8의 지진이 발생해 피해가 여럿 발생했다.

동부 화롄 지역에서 1층에 편의점이 있는 3층 건물이 쓰러지고, 기차역 승강장 천장이 무너져 달리던 열차의 객차 6량이 탈선했으며, 다리 2곳과 초등학교 건물 일부 등이 붕괴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해당 지진의 규모를 당초 7.2로 발표했다가 이후 6.9로 수정했다.

지진으로 미국 쓰나미경보센터(TWC)는 대만에 쓰나미(지진 해일) 경보를 발령했고, 일본 기상청은 오키나와현 미야코지마와 야에야마 지방 일대에 쓰나미 주의보를 내렸다.

또 이날 오후 5시 39분께 대만 동부 화롄 남남서쪽 80km 지역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고, 전날 오후 9시41분 타이둥현 관산진에서도 규모 6.4의 지진이 있었다.

잇따른 지진에 인명피해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

천궈창 기상국 지진예측센터장은 이날 규모 6.8의 지진이 최근 잇따른 지진의 본 지진이고, 전날 지진은 본 지진에 앞선 전조 지진이라고 밝혔다.

이어 본진이 발생하기 전에 73차례의 전조 지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일본에서도 지진이 잇따랐다.

오후 5시 10분 일본 오키나와현 오키나와 서쪽 178km 해역에서 규모 6.1의 지진에 이어 오후 7시 5분 오키나와 서쪽 179km 해역에서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미·러 우주비행사 첫 좌석교환 상대 우주선 타고 우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에 대한 서방의 제재로 미국과 러시아 간에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양국 우주비행사가 상대측 우주선을 타고 국제우주정거장(ISS)으로 가는 첫 '비행(좌석)교환'이 이뤄진다. ISS 비상사태에 대비한 대체 운송수단 확보 차원에서 합의된 것이지만 우주 분야 협력의 끈을 완전히 놓지는 않았다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양측이 체결한 협정에 따라 우선 미국 우주비행사 프랭크 루비오가 21일 오후 6시 54분(이하 현지시간·한국시간 오후 10시54분) 카자흐스탄의 바이코누르 우주센터에서 발사되는 소유스 MS-22 캡슐을 타고 ISS로 향하게 된다.

소유스호는 3시간여에 걸쳐 지구 궤도를 두 바퀴 돈 뒤 ISS의 '라스벳'(새벽) 모듈에 도킹한다.

NASA TV는 18개월 만에 이뤄지는 미국 우주비행사가 탑승한 소유스호 발사와 도킹 과정을 생중계할 계획이다.

루비오는 러시아 우주비행사 두 명과 소유스호에 탑승하며 제67원정대에 합류해 ISS에서 6개월간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내달 3일 낮에는 러시아 현역 우주비행사 중 유일한 여성인 안나 키키나(37)가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센터에서 팰컨9 로켓에 실려 발사되는 미국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크루 드래건을 타고 ISS로 가게 된다. /연합뉴스

태풍 '난마돌' 상륙한 일 가고시마현 19일 태풍 '난마돌'이 일본 서남부에 상륙한 가운데 가고시마현 이사의 센다이강 강물이 거센 물살을 일으키며 흐르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 31개 성 중 30곳 올 1~7월 적자

제로 코로나 정책·경기침체 영향

중국 31개 성(省)·시·자치구 가운데 상하이를 뺀 30곳이 '제로 코로나' 정책과 그에 따른 경기침체로 올해 1~7월 적자를 기록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코로나19 철통 봉쇄를 위한 주요 도시 부분·전면 봉쇄 등으로 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제로 코로나 정책 장기화에 따른 방역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불어나는데도 부동산 위기로 지방정부 주요 수입원인 토지 판매는 급감하고 있어서다.

특히 중국 당국이 다음 달 16일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개최를 앞두고 코로나 방역의 고삐를 더 죄고 있어 지방정부의 재정난은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실제 지방정부의 재정난은 심각하다.

무엇보다 국유 토지를 매각해 자금을 확보하는데 부동산 시장 위기로 토지 판매가 급락했다.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적으로 토지 판매 수입은 3조4천억위안(약 672조1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 줄었다. 지방정부는 특수목적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 중앙 정부가 설정한 올해 할당량을 대부분 소진한 상태여서 이를 활용하기는 어렵다. /연합뉴스

태국 내년부터 폐 플라스틱 수입 단계적 금지

2024년 50%, 2025년 전면 금지

태국 정부가 오는 2025년부터 폐 플라스틱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

동남아시아로의 선진국 플라스틱 쓰레기 수출이 문제가 되면서 수년 전부터 추진해온 수입 금지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19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와라웃 신빠-아차 태국 천연자원환경부 장관은 정부가 향후 3년간 단계적으로 플라스틱 스크랩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플라스틱 스크랩은 재활용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말한다.

와라웃 장관은 "2020년부터 수입 금지가 논의돼 왔으며, 이제 이를 실행할 시점"이라며 "태국이 플라스틱 쓰레기 폐기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나라를 보호해야 한다"며 "수입 금지는 플라스틱 쓰레기로부터 나라를 깨끗하게 하는 중요한 걸음"이라고 덧붙였다.

내년에 시작하는 1단계 제한 조치는 자유무역지구 내 수입 업체의 생산 능력을 기준으로 폐플라스틱 수입량을 규제한다. 2024년에는 수입이 50%만 허용되며, 2025년에는 전면 금지된다. 자유무역지구 외부에 있는 공장들은 폐플라스틱 수입 시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와라웃 장관은 이와 함께 2023~2027년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계획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쓰레기 매립지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꺼내 재활용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또 전국 백화점과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는 캠페인도 벌인다.

중국이 2018년 플라스틱 쓰레기 수입을 금지하면서 세계적으로 '쓰레기 대란'이 벌어졌다.

세계 재활용 쓰레기의 절반 정도를 수입해 처리하던 중국이 환경 보호를 이유로 수입 중단을 선언했고, 갈 곳을 잃은 선진국 플라스틱 쓰레기가 동남아시아 각국으로 몰렸다. /연합뉴스

상가매매(상무지구)(유흥적합)

▶ 중심 상업지구
▶ 유흥가능 (전용 100평)

▶ 시세 - 10억
▶ 급매 - 6억8천

(보3천,월수익 380만 ,융 4억)
(유흥가능 , 사무실 , 빠 , 룸 ,홀덤바)

010-6670-9800

신축 원룸 매매

● 월수익- 720만
● 연수익 - 9000만

● 매가 - 14억5천
(융자 7억)

신축원룸 (공실없음)

경매교육[기초반 특수반]

* 경매실전 전문반 모집 (선착순10명)
(경매기초교육부터 ~ 실전투자 수익창출까지)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2) 중급반 (실전부터 ~)
3) 특수반 (유치권,법지,지분)
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

▶ 경매 물건 추천 ◀

광주	남구 지석동 (토지) ▶ 감정가 2억1,300 → 최저가 1억5천
	광산구 수완동(윤슬의아침) ▶ 감정가 6억3,300 → 최저가 4억4천
	북구 삼각동 (어린이집) ▶ 감정가 7억1,100 → 최저가 3억9천
	광산구 쌍암동 (근린상가) ▶ 감정가 5억1,800 → 최저가 2억9천
	광산구 하남동 (공장) ▶ 감정가 36억4,500 → 최저가20억4천
	서구 농성동 (토지) ▶ 감정가 6억1천 → 최저가 4억2,800
	서구 풍암동 (토지) ▶ 감정가 25억 → 최저가 14억
	북구 용봉동 (근린상가)▶감정가 32억 → 최저가 11억6천

010-2614-9801